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진표가 간자(簡子)를 전한 까닭은?

치열한 참회... 미륵·지장의 계법 유포

1. 금산사와 변산 부사의방
경덕왕 대의 진표(眞表)는 대중불교의 또 다른 선구자였다. 그는 해속과 해공 및 대안과 원효와 달리 망신잡법(亡身穢法)과 점찰법회(占察法會)를 통해 불교의 지평을 넓혔다. 『삼국유사』 「의해」편의 14 조목은 '이해동진'과 '현유가 해화엄' 조목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한 인물의 행장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진표는 14조목 중 2 조목에 걸쳐 다뤄지고 있다. 물론 '진표전간'(眞表傳簡) 조목 뒤의 '관동풍악발원수석기'(關東風岳鉢淵敷石記)는 사주(寺主) 영장(營丈)이 승안(承安) 4년에 세운 비석의 기록이고 이것은 '진표전간'에 부속된 글이다. 그리고 '심지계조'(心地繼祖)는 심지가 영심(永深) 대덕을 통해 진표 조사를 있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삼국유사』 내에는 자장(慈藏)과 원효(元曉)와 의상(義湘)과 같은 대중적 인물은 여러 편과 조목에 걸쳐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진표는 '의해'편 내의 몇몇 조목에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유적은 곳곳에 남아 전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낸 '치열한 수행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털어준 '넉치는 인간미'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전주 벽골군(甓骨郡) 나산촌(那山村) 대정리(大井里)에서 태어난 진표는 열 두 살 때에 출가할 뜻을 가졌다. 아버지의 허락으로 금산수(金山叢)의 순제(崇濟, 順濟)법사에게 가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승

아서 바위 위에 올라놓았다. 진표가 다시 발분하여 삼칠(3*7=21) 일을 기약하고 밤낮으로 수련하였다. 돌로 몸을 치며 참회하기를 사흘 만에, 손과 팔이 부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7일 밤이 되자 지장보살이 와서 손으로 금석장(金石杖)을 흔들며 가지(加持)를 주니 손과 팔이 회복되었다. 보살이 가사와 바리때를 주었다. 진표는 그 영험에 감격하여 두 곱 절 더 정진하였다. 삼칠 일이 되자 곧 세상을 보는 눈[天眼]을 얻어 도솔천의 무리가 와서 예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에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이 앞에 나타나더니 자씨(미륵)보살이 그의 이마를 만지며 말하였다. "장하다. 대장부였다. 이렇듯 계를 찾아 몸을 아끼지 않고 지성으로 참회하는구나." 그리고 지장보살은 『계본』을 주고 자씨보살은 다시 두 개의 나무 간자[木簡]를 주니, 하나는 9(九)라 써여 있고, 또 하나는 8(八)이라 써여 있었다. "이 두 간자는 내 손가락 뼈이다. 처음(始)과 근본(本)의 두 깨달음을 비유한 것이다. 또 9란 것은 법이요, 8은 새로 만들어져 부처를 이르는 종자이니, 이것으로 인과응보[來報]를 알 것이다. 네가 현재의 몸을 버리고 큰 나라 왕의 몸을 받아, 그 후에는 도솔천궁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을 마치고 두 성인은 사라졌다. 그때가 임인년(762) 4월 27일이었다.

진표가 교법을 다 받고는 금산사를 창건하려고 산에서 내려와 대연진(大淵津)에 이르렀다. 홀연히 용왕이 나타나 옥가사를 드리고 8만의 권속을 데리고 금산사 승으로 왔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 며칠 만에 금산사를 완공하였다. 다시 자씨보살이 감응하여 도솔천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 울사를 위하여 계법을 주자, 이에 울사가 불도들을 위하여 미륵장육상(彌勒丈六像)을 주성하였다. 다시 계법을 주던 모습을 금당(金堂)의 남쪽 벽에 그렸다. 불상은 갑진년(764) 6월 9일에 주성하여 병오년(766) 5월 1일에 금당에 봉안하니 이 해가 대력(大曆) 원년(766)이었다.

2. 길상사와 점찰법회

진표가 금산사에서 나와서 속리산으로 가는 길에 소달구지를 타고 오는 이를 만났다. 그 소가 그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달구지에 탄 사람이 내려와 물었다. "무슨 이유로 이 소가 스님을 보고 읊니까?" 진표가 대답하였다. "나는 금산사의 진표라 합니다. 일찍이 변산의 부사의방에 들어가 미륵과 지장 두 보살 앞에서 계법진생(戒法眞生)을 받았습니다. 이제 절을 창건하여 길이 수도할 절을 찾고자 합니다. 이 소들이 걸으려는 어리석지만 속으로는 슬기로우니 내가 계법 받은 것을 알고 불법을 존중하 여겨 무릎을 꿇고 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하였다. "짐

승도 오히려 이러한 믿음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사람이 되어 어찌 믿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는 낮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진표가 자비심으로 다시 그의 머리를 깎아 주고 계를 일러 주었다.

진표는 속리산 골짜기에 이르러 길상초가 난 곳을 표시해 두었다. 다시 명주(강릉)으로 향하여 바다가를 천천히 걸었다. 물고기와 자라들이 바다에서 나와 그의 앞으로 모여 육지처럼 되었다. 진표는 그것을 밟고 바다 가운데로 가서 계법을 외워 주고 다시 나와 고성군(高城郡)에 이르렀다. 그는 개골산(금강산)에 들어가 발연수(鉢淵叢)를 세우고 점찰법회를 열어 7년을 거주하였다. 그 때 명주 경내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다. 때문에 진표는 그들을 위하여 계법을 강설하자 사람마다 받들어 간직하며 삼보(三寶)를 공경하였다. 얼마 뒤 고성 해변에 무수한 고기들이 저절로 죽어 나오므로 백성들이 이것을 팔아 양식을 마련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진표는 발연수에서 나와 다시 부사의방에 이르렀다. 뒤이어 그는 고향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 뵈고 진문(眞門) 대덕의 방에 나아가 거주하였다. 그때 속리산의 영심(永深) 대덕과 용종(融宗) 대덕과 불타(佛陀) 대덕 등과 함께 울사의 처소에 와서 간청하였다. "저희들이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와서 계법을 구하오니 바라건대 법문을 열어 주소서." 진표는 묵묵히 앉아 답을 주지 않았다. 세 사람이 복숭아 나무에 올라

금강산서 7년 점찰법회로 참회 제자들 참회법회 풍토 확립

가서 거꾸로 땅에 떨어지며 힘써 참회하였다. 진표는 그제서야 가르침을 전하며 이마에 물을 뿌리는 의식[灌頂]을 베풀고, 가사와 바리때, 『공양차제비법』(1권)과 『점찰선악업보경』(2권) 및 간자 189개를 주고 다시 미륵진생 9와 8을 주며 경계하여 말하였다. "9는 법이요, 8은 새로 만들어질 부처가 되는 종자이다. 내가 이미 부탁했으니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속리산으로 가서 길상초가 나는 곳마다 절을 짓고 이 교법에 따라 널리 인간 세상을 제도하여 후세에 유포하라."

진표에게서 법을 얻은 고족으로는 영심(永深)·보종(寶宗)·신방(信芳)·체진(體珍)·진해(珍海)·진선(眞善)·석충(釋忠) 등이다. 이들은 모두 일기를 이루어 저마다 산문의 조사가 되었다. 특히 영심은 가르침을 받들고 바로 속리산으로 갔다. 그는 길상초가 나는 곳을 찾아 절을 세우고 길상사(吉祥寺)라 하였다. 영심은 진표에게서 간자를 전해 받고 속리산에 머물면서 점찰



진표유사는 금산사 미륵불상 외에도 금강산 발연수와 속리산 법주사 등에 총 3개 미륵도량을 세웠다. 사진은 진표유사가 신라 해공왕 12년 최초 조성했던 법주사 미륵대불.

법회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영심은 진표의 법통을 이어나갔다.

3. 금강산 발연수와 탐침법

진표는 부친과 함께 다시 발연수로 돌아왔다. 그리고 도업을 뒤으며 부친에게 효행을 다하였다. 그는 천화(遷化)가 가까워지자 절의 동쪽 바위에 올라 임적하였다. 제자들이 시신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공양하다가 뼈가 산화할 때에 이르러 흙으로 덮여 무덤을 삼았다. 그곳에서 소나무 한 그루가 곧 돋아났다. 오랜 세월 뒤에 그 소나무는 말라 죽었다. 다시 소나무 한 그루가 나오자 뒤에 또 한 그루가 났는데 그 뿌리는 하나였다. 이 두 그루 소나무는 고려 후기까지도 서 있었다고 전한다. 일연의 제자인 보강 무극(寶鑑無極)은 "무릇 경의를 표하는 자들이 소나무 밑에서 뼈를 찾아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하였다"고 했다.

무극은 일연이 찬술한 『삼국유사』의 5권 9편 138 조목 중 두 조목에 자신의 기록을

덧붙여 놓았다. 그 하나가 바로 이 조목이다. 무극은 영장(營丈)이 세운 비석을 원효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내(영장)가 성골(聖骨)이 인멸할까 염려하여 정사년(897) 9월에 소나무 밑에 가서 뼈를 주위통에 담으니, 세 흙 남짓 되었다. 바위 위의 두 그루 나무 아래 비석을 세우고 뼈를 봉안하였다." 이 기록에 기재된 진표유사의 사적은 '발연석기'와 같지 않은 데가 있으므로 영장이 기록한 것을 발췌하여 기재했으니 뒤의 어진 사람들은 자세히 살피도록 하라. 무극이 기록한다."

점찰법회를 시월하기 위해 단(壇)을 꾸미는 형식은 육륜(六輪)과 조금 달랐다. 하지만 수행 방법은 산중에 전하는 법규와 같았다. 그런데 당시에는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던 것 같다. 즉 진표와 영심 등이 시월한 『점찰경』에 의거한 탐침법(塔藏法)에 대하여 『사리불문경』에 의거한 참회법에 기초했던 법경(法經)과 인종(仁宗) 등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탐침법'과

'박참법'의 대립과 갈등의 문제는 곧 왕실에게까지 알려졌다. 왕은 내사시랑 이원찬(李元撰)에게 명하여 대흥사에 가서 대덕들에게 물게 하였다. 그곳에 머물던 대덕 법경과 인종 등은 "『점찰경』은 현재 두 권이 있는데 제목에 보리등(菩提燈)이라 한 것은 외국에서 번역한 가리킵니다. 그것은 근래에 간행된 것 같으며 또한 사본으로 전한 자도 있으나 여러 기록을 조사해 보아도 정확한 이름, 역사, 연대, 장소가 없고, 탐침은 여러 가지 경과는 다르니 여기에 의거하여 따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왕은 직령으로 금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일연은 광주(廣州)의 한 승려가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참회방법인 박참법(撲藏法)을 행한 것에 대해 청주(靑州)의 관리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것을 요망한 것이라 한 『담승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점찰경』의 탐침법을 비판한 법경과 인종 등에 대해 '청주의 거사들이 한 탐침 따위의 사건을 마치 대유학자들이 시서(詩書)까지 읽고도 남의 무덤파는 것과 같으니, 마치 '법을 그리다가 개를 그린 것'과 같다고 하였다. 부처가 예방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지만, 『점찰경』에 번역자나 연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의심스럽다 하면, 역시 삼[藏]을 취하고 금[金]을 버린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 경문을 자세히 보면, 부처가 중생을 교화하는 설법이 깊고 빈틈이 없으며, 더러움을 씻어 버리고 깨끗한 사람을 깨우쳐 주기가 이 책만한 것이 없기 때문

참회법 두고 인종 논쟁 제기 왕 칙령으로 진표의 참법 인정

이다. 그러므로 대승참(大乘修)이라고도 하며, 또한 육근(六根) 중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점찰경』에서 운(輪)을 던져 상(相)을 얻는 것이 『사리불문경』의 참회법과 어찌 다르겠느냐고 역설하였다. 일연은 미륵보살에게서 진표가 참법을 일으켜 친히 간자를 얻었으며 법문을 듣고 부처를 보았으며 진표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반면 인종의 무리는 '금을 훔칠 때 사 람은 보지 못한 것'과 같이라며 독자들을 일깨워 주고 있다.

참고문헌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 (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고영성, 『나는 오늘날도 길을 간다, 원효 한국사상의 새벽』(한길사, 1997; 2002; 2009).
고영성, 『원효탐색』(연기사, 2002; 2010).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끈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헨프오일부누 1개 10,000원

■ 건조,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돌리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조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습 및 면역력 향상에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죽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원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 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헌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